

# 한국인과 일본인의 음절의식에 대한 대조연구

오 미 영\*

##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인과 일본인의 음절의식의 차이
    - 1. 한국인과 일본인의 음절의식에 관한 조사
    - 2. 조사 분석1 - 일본인의 경우
    - 3. 조사 분석2 - 한국인의 경우
  - III. 일본어 특수음소
    - 1. 축음(促音)
    - 2. 발음(撥音)
  - 3. 장음(長音)
  - 4. 특수음소와 일본어의 음절
  - 5. 음성학적 음절, 음운론적 음절, 그리고 박
  - IV. 일본어의 음운론적 음절구조
    - 1.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운론적 음절구조
    - 2. 일본어 박구조의 특징
  - V. 맺는말
- 참고문헌

## I. 들어가는 말

유아기의 언어 습득을 제외하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모어를 갖고 있는 경우 제 2언어를 학습할 때 모어의 간섭(interference)을 받는다. 모어를 기준으로 습득 대상 언어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 간의 간섭은 모어와 제 2언어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 2언어와 제 3언어 사이에도 나타난다. 따라서 언어 간의 대조연구를 통해 각각의 언어 간의 차이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언어 학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대조언어학(對照言語學, Contrastive Linguistics)<sup>1)</sup>이라고 한다.

\*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일본학과 교수

1) 「對照言語學とは、二つ、あるいは、二つ以上の言語について、音、語彙、文法等の言語体系、さらにはそれらを用いる行動である言語行動のさま

본고는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절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한국인과 일본인의 음절의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느냐 하는 점을 설문 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또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양국인의 음절의식의 차이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절구조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규명하고, 특히 일본어 음운체계 내에 축음(促音), 발음(撥音), 장음(長音)이라는 특수음소가 존재함으로써 발생한 일본어 음절구조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제까지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절구조에 대한 대조는 고영근(1991), 황찬호 외(19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운체계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언급되어 왔을 따름이다. 본고는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로 양언어 화자 사이의 음절의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 음절구조의 차이를 밝히는데 일본어 특수음소의 존재에 주목한 것은 이제까지의 한일어 대조연구와 구별되는 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II. 한국인과 일본인의 음절의식의 차이

### 1. 한국인과 일본인의 음절의식에 관한 조사

中條修(1990:35)는 일본어의 「日本(にっぽん)」, 「學校(がっこう)」, 「先生(せんせい)」, 「公園(こうえん)」라는 네 개의 단어를 일본인

---

ざまな部分をつきあわせ、どの部分とどの部分とが相對應するか、あるいは、しないかを明らかにしようとする言語研究の一分野であると定義されよう。(대조언어학이란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언어에 대해 음, 어휘, 문법 등의 언어체계, 나아가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행동인 언어 행동의 다양한 부분을 대조하여,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서로 대응하는가, 혹은 대응하지 않는가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언어 연구의 한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다.) (石綿敏雄 外著 2001:9)

대학생 80명에게 발음하도록 하여 음절 경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이들 단어에는 축음(促音・そくおん), 발음(撥音・はつおん), 장음(長音・ちょうおん)이라고 하는 소위 일본어의 특수음소가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中條修의 조사를 응용하여 한국인 대학생 160명에게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하였다.

〈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다음의 네 단어를 음절에 따라 잘 나눈 것은 어느 것인지 골라주세요.

1 日本 にっぽん

① に / っ / ぽ / ん ② に / っ / ぽん ③ にっ / ぽ / ん ④ にっ / ぽん

2 學校 がっこう

① が / っ / こ / う ② が / っ / こう ③ がっ / こ / う ④ がっ / こう

3 先生 せんせい

① 세 / ん / 세 / 이 ② 세 / ん / 세이 ③ 센 / 세 / 이 ④ 센 / 세이

4 公園 こうえん

① こ / う / え / ん ② こ / う / えん ③ こう / え / ん ④ こう / えん

160명중 80명은 대학의 교양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초급일본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로 일본어를 공부한지 한 달 남짓 되었다. 나머지 80명은 교양과정 중 중급일본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로 반년 정도 일본어 공부를 해 왔다. 초급과 중급을 구분한 것은 일본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음절의식에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두 조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아래 표로 나타내었다. 단위는 %이다. 中條修의 조사에서는 2음절, 3음절, 4음절이라는 음절수에만 주목하고 있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은 모두 3음절이므로 통합하였고 어느 쪽이 우세한지만을 나타내고 있다.

〈표1〉 음절의식 조사1 - 「日本(にっぽん)」의 경우

日 本		に/っ/ぽん	に/っ/ぽん	にっ/ぽん	にっ/ぽん
한국인	초급	2.5	10	5	82.5
	중급	31.25	12.5	23.75	32.5
일 본 인		18.2	42.4 ([に/っ/ぽん]약간포함)		39.4

〈표2〉 음절의식 조사2 - 「學校(がっこう)」의 경우

學 校		が/っ/こ/う	が/っ/こ/う	がっ/こ/う	がっ/こ/う
한국인	초급	3.75	6.25	8.75	71.25
	중급	26.25	17.5	33.75	22.5
일 본 인		9.1	37.9 ([が/っ/こ/う]약간 포함)		53

〈표3〉 음절의식 조사3 - 「先生(せんせい)」의 경우

先 生		せ/ん/せ/い	せ/ん/せ/い	せん/せ/い	せん/せ/い
한국인	초급	2.5	6.25	30	61.25
	중급	31.25	18.75	20	30
일 본 인		28.9	53 ([せん/せ/い]약간 포함)		18.1

〈표4〉 음절의식 조사4 - 「公園(こうえん)」의 경우

公 園		こ/う/えん	こ/う/えん	こう/えん	こう/えん
한국인	초급	1.25	31.25	7.5	60
	중급	28.75	23.75	23.75	23.75
일 본 인		27.3	45.5 ([こ/う/えん]약간 포함)		27.3

## 2. 조사 분석1 - 일본인의 경우

단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2음절, 3음절, 4음절 중 3음절로 나누는 경우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음절어를 다시 두 개로 나누었다면 좀 더 명확한 결과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日本(にっぽん)」과 「學校(がっこう)」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음을 독립된 음절로 파악하는 비율이 적음을 알 수 있다. 「日本(にっぽん)」의 경우, 4음절로 파악한 18.2%와 3음절로 파악한 것 중 일부만이 축음을 독립된 음절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발음을 독립된 음절로 인식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先生(せんせい)」와 「公園(こうえん)」의 경우 그러하다. 즉, 「先生(せんせい)」에서는 3음절 중 발음을 독립된 음절로 파악한 것이 우세하고 여기에 4음절로 파악한 28.9%를 합쳐 생각하면 80%가까운 수치를 보일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學校(がっこう)」와 「公園(こうえん)」에서 보이는 ㄷ단 장음은 독립, 비독립을 판단하기 어려운 수치를 보이고 있고, 「先生(せんせい)」의 ㄷ단 장음도 마찬가지이다.

조사 결과 모어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음절 경계에 관한 의식의 불일치는 축음, 발음, 장음이라는 소위 일본어의 특수음소를 가지는 단어에 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선 축음, 발음, 장음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이들 특수음소에 대해 고찰하고, 또 이와 관련하여 일본어 음절구조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 3. 조사 분석2 - 한국인의 경우

먼저 초급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네 단어 모두 2음절로 파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각각의 특수음소를 앞음절에 붙여

서 하나의 음절로 의식하고 있는 비율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촉음〉 「日本(に <u>っ</u> ぽん)」	87.5%(5+82.5)
「學校(が <u>っ</u> こう)」	80%(8.75+71.25)
〈발음〉 「日本(に <u>っ</u> ぽん)」	92.5%(10+82.5)
「先生(せん <u>っ</u> せい)」	91.25%(30+61.5)
「公園(こう <u>っ</u> えん)」	91.25%(31.25+60)
〈장음〉 오단 장음	
「學校(가 <u>ㅓ</u> ㅓ)ㅓ)」	77.5%(6.25+71.25)
「公園(공 <u>ㅓ</u> ㅓ)ㅓ)」	67.5%(7.5+60)
ㅓ단 장음	
「先生(센 <u>ㅓ</u> ㅓ)ㅓ)」	67.5%(6.25+61.2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특수음소 중 발음의 경우가 앞 음절과 하나의 음절로 인식되는 비율이 높고 장음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격차가 아니기는 하나 이는 한국어에서 장음이 변별요소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일본어의 장음음소도 [ko:]나 [se:]라는 장모음이 아니라 [kou], [sei]와 같은 모음의 연속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중급일본어 수강 대학생들의 경우는 초급일본어 수강생의 결과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4음절로 파악하는 비율이 초급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어가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언어이며 특수음소가 음운론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음절임을 인식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단어 모두 2음절로 파악하는 비율과 4음절로 파악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음절의식은 모어인 한국어의 음절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에 틀림없다. 제 4장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절구조를 비교하여 실제로 위의 조사 결과의 원인이 양언어의 음절구조상의 차이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Ⅲ. 일본어 특수음소<sup>2)</sup>

일본어의 음운체계<sup>3)</sup>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어 음운체계〉

- ① 모음음소 : /a, i, u, e, o/
- ② 자음음소 : /k, s, t, c, n, h, m, r, g, z, d, b, p/
- ③ 반모음음소 : /j, w/
- ④ 특수음소 : /Q/(촉음), /N/(발음), /R/(장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어는 모음음소, 자음음소, 그리고 반모음음소 외에 촉음, 발음, 장음이라는 특수음소를 갖는다. 이하 각각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 1 촉음(促音)

촉음(促音) 「ッ」은 원칙적으로 [p, t, k, s, ʃ]앞에 나타나서 후속하

2) 『日本語教育事典』(小川芳男外編, 大修館書店, 1991:15)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3) III장 및 IV장의 기술에는 中條修(1990)을 많이 참조하였다.

는 자음과 같은 입모양으로 한 박자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음소기호로서 /Q/와 같이 나타낸다. 「坂(さか)」의 [k]나 「肩(かた)」의 [t]를 길게 늘여서 발음하면 「作家(さっか)」 「勝った(かった)」가 된다. 또 「委細(いさい)」의 [s]도 길게 늘려서 후두가 긴장하면 「一切(いっさい)」와 같이 된다.

이렇게 축음(促音)에 공통되는 특징은 축음 뒤에 이어지는 무성자음의 입모양으로 숨의 흐름을 한 박자 정도 길이만큼 방해하여 후두의 긴장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후속하는 자음의 지속부인 축음은 확실한 음으로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후술할 발음(撥音) 「ン」과 같이 독립된 음성은 갖지 않는다.

그러나 축음은 다음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개략적으로는 이중자음 [-pp-, -tt-, -tts-, -ttf-, -kk-, -ss-, -ff-]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며 단자음과 음운론적 최소대립이 인정된다. 이 이중자음 전반부가 한 박자분의 길이를 가지며 음성 환경에 의해 [p], [t], [k], [s], [ʃ]와 같이 다섯 개의 이음(조건이음)으로서 실현된다고 생각되므로 발음(撥音)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보적 분포의 원칙에 의해 음소 /Q/로 인정하는 것이다.

- 一杯[ippai] / 位牌[ihai]
- 一等[itto:] / 伊東[ito:]
- 一通[ittsü:] / 胃痛[itsü:]
- 一致[itfi] / 一[itfi]
- 一軒[ikkeN] / 意見[ikeN]
- 一隻[isseki] / 遺跡[iseki]
- 一升[ijfo:] / 衣裳[ifo:]

축음은 다음과 같이 강조어형이나 외래어에서는 유성자음 앞에서



도 관찰된다.

すっごい[süggoi]      すっばらしい[sübbaraʃi:]  
 バッジ[baddʒi]      バッグ[baggu]      ベッド[beddo]

일본의 방언에서도 축음이 유성자음 [b,d,g] 앞에 서는 예가 주로 산간 지방에서 보이고, 게다가 [r]이나 [h] 앞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방언이 있다. 또 鹿兒島나 奄美의 방언에서는 축음이 어말에도 나타난다.

## 2 발음(撥音)

발음(撥音)「ン」은 음소기호로서 /N/로 나타낸다. 본래 구개수비음(口蓋垂鼻音)[N]으로 뒤에 다른 음이 오지 않는 어말 혹은 문말에 나타난다. 그러나 뒤에 다른 단음이 이어지는 경우는 그것이 나타나는 음성 환경에 따라 역행동화를 일으켜서 다음과 같은 이음으로 실현된다.

- ① [m] 양순비음 [p,b,m]의 앞  
 さんぽ[sampo], 田んぼ[tambo], 運命[umme:]
- ② [n] 치경비음 [t,d,n,s,z,r]의 앞  
 反對[hantai], 現代[gendai], 団地[dantʃi], 案内[annai],  
 親類[ʃinrui]
- ③ [ɲ] 경구개비음 [ɲ]의 앞  
 こんにゃく[koɲaku]
- ④ [ŋ] 연구개비음 [k,g,ŋ]의 앞  
 健康[kenko], 言語[gengo] 혹은 [geŋŋo]
- ⑤ [N] 구개수비음 어말

本[hoN], 円[eN]

이와 같이 발음은 뒤에 오는 자음과 같은 조음점을 지닌 비음으로 동화하고 한 박자분 길이의 지속음으로서 작용한다. 또 [N]은 [i], [e], [ɨ] 앞에서는 비모음 [i]가 되고, 또 [u], [o], [a], [w] 앞에서는 비모음 [ɨ]이 되는 일이 많다.

위의 비음 중 [m], [n], [ŋ]가 ㄹ행, ㄴ행, ㄱ행의 자음 [m-, n-, ŋ-]와 다른 것은 이들 모두 각각 단독으로 하나의 박(모라)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こま」의 [m], 「ほね」의 [n], 「かご」의 [ŋ]를 길게 늘여서 발음하면 각각 다음과 같이 되어 버린다.

[koma](こま) → [komma](コンマ)

[hone](骨:ほね) → [honne](本音:ほんね)

[kaŋo](かご) → [kaŋŋo](看護:かngo)

### 3. 장음(長音)

장음(長音) 「一」은 직전에 오는 모음 [a, i, u, e, i]를 입모양을 바꾸지 않고 한 박자분 길게 늘인 것이다. 음소기호로서 /R/로 나타낸다.

おじいさん[odʒi:saN] : おじさん[odʒisaN]  
할아버지                      아저씨, 삼촌 등

おばあさん[oba:saN] : おばさん[obasaN]  
할머니                        아줌마, 고모 등

위의 두 쌍은 모음을 길게 늘여 발음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의미에 차이가 생겨서 단모음과 장모음 사이에 음운적인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대립은 あ, い, う, え, お의 다섯 개 모음 모두에 인정된다.

- [ka:do](カード 카드) : [kado](角:かど 모퉁이)  
 [ki:to](生糸:きいと 생사) : [kito](歸途:きと 돌아가는 길)  
 [sü:ji](數詞:すうし 수사) : [sü:ji](壽司:すし 초밥)  
 [e:ki](英氣:えいき 영기) : [eki](驛:えき 역)  
 [ko:i](好意:こうい호의) : [koi](戀・鯉:こい 사랑・잉어)

일본어의 장모음은 음성적으로는 하나의 장음절이지만 영어의 「[sit] sit(앉다) : [si:t] seat(자리)」의 대립에서 보이는 장모음 [i:]의 작용과는 다르다. 장모음(두 박자)과 단모음(한 박자)의 대립은 일본어에서는 지극히 명확하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a オーサカ[o:saka] (大阪, 逢坂)  
 b オサカ[osaka] (小坂)  
 a' オーノ[o:no] (大野)  
 b' オノ[ono] (小野)

이 인명과 지명은 모음의 길이에 의해서 구별되고 있다. 따라서 그 장단의 구별이 불충분하다면 이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영어는 「길이」가 엄밀하지 않기 때문에 「大阪」, 「大野」는 종종 [osaka], [ono]와 같이 발음된다.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에서도 이 두 단어는 모두 [오노]라고 표기하므로 표기상으로는 변별력을 잃고 만다.

즉, 일본어의 장모음은 모음 한 박자와 그것과 같은 모음 한 박자

분의 「끄는 음(引く音)」으로 이루어진다. 이 「끄는 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행하는 모음에 따라서 다섯 종류의 음성이 되어 실현되는데 음운론적으로는 하나의 장음음소 /R/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음소 /R/에는 명확한 음성특징은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 장음을 음소로 인정하지 않고 같은 모음의 연속 /aa/, /ii/ 등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그것이다.(服部四郎 1960: 360-361. 小泉保 1978:118-124)

그런데 어떤 장모음을 장음으로 볼 것인가, 혹은 두 개의 같은 모음의 연속으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金田一春彦은 「里親」와 「砂糖屋」라는 예를 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里親 /satooja/ [sato?oya]

砂糖屋 /satoRja/ [sato:ja]

즉, 「里親」는 /sato + oja/[o-?o]로, 사이에 형태(의미)가 나뉘는 부분이 인정되는 두 개의 모음연속이며, 「砂糖屋」는 /satoR + ja/[o:]가 되어, 나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장음이라고 하였다.(金田一春彦 1967:135-153)

이러한 金田一春彦의 의견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小泉保의 견해이다. 小泉保는 천천히 끊어서 발음하면 형태가 지니는 잠재적인 구분점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그것을 듣고 분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형태가 나뉘는 곳을 인정하는 데에만 필요하고 확실한 「음성상의 차이」가 없는 한 이 구별은 무리라고 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小泉保 1978:118-124)

이러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현대일본어에서는 장음으로 하나의 음소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 4. 특수음소와 일본어의 음절

제 2장의 특수음소를 지니는 단어의 음절 경계 의식에 관해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축음은 발음이나 장음에 비해 직전에 오는 음절과 결합하여 함께 발음된다고 의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특수음의 성질과 관계가 있다. 즉, 발음(撥音)은 그것만으로도 단독으로 발음할 수 있고, 음성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된다. 그러나 직음이나 요음에 비해서 음절로서의 독립성은 약하다. 장음(長音)은 앞에 오는 음절의 모음을 한 음절 길이만큼 늘린 것으로 그 부분만을 독립시켜서 발음하기 어렵다는 점은 축음과 비슷하지만 귀에는 들리는 것이다. 한편 축음은 후속하는 음절의 자음(대부분은 무성자음)을 한 음절 길이만큼 늘린 것인데,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무음 상태로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서 발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특수음소는 직음이나 요음과 비교할 때 음절로서의 독립성도 약하고, 그 중에서도 축음은 특히 독립성이 약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5. 음성학적 음절, 음운론적 음절, 그리고 박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특수음소를 지니는 단어의 음절 경계가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 특수음소의 음절로서의 독립성과 관련이 있다. 특수음소는 실제로는, 즉 음성적으로는 직전의 음절과 결합하여 그 음절의 부분이 되어 전체로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어 실현되는 일이 많다. 이 때 음절의 경계는 그 직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음절(音節, syllable)이란 그 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 끊어서 발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단위이다. 또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일반인이 발음의 단위로서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같은 길이를 갖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언어에서는 하나의 음절인 음이 다른 언어에서는 두 음절인 경

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본어에서는 특수 음소를 포함하는 음절의 경우 실제로 발음되는 (음성학적인) 음절과 음운론적 음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服部四郎은 음절 외에 음운론적 단위로 「모라(mora)」라는 단위를 설정하였다.(服部四郎 1984: 175-184) 또 龜井孝는 음성학적 음절과 음운론적 음절이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운론적 음절을 「박(拍)」이라고 부르자고 하였다.

다음 쌍을 비교해보자.

- ① オカザキ[okazaki] (岡崎)
- ② オーサキ[o:saki] (大崎)

음성학적으로 볼 때 ①은 4음절로 구성되어 있고, ②는 3음절이다. 그러나 발음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길이라는 점에서는 ①과 ②가 거의 같다. 이것은 「岡崎」의 「オカ」라는 부분과 「大崎」의 「オー」라는 부분의 길이가 거의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オカ」는 2음절, 「オー」는 1음절이라는 사실에서 「オー」와 같은 긴 음절은 「オ」, 「カ」와 같은 짧은 음절의 두 배의 길이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음 쌍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 ① コセキ[koseki] (戸籍・古跡)
- ② コーキ[ko:ki] (後期・好機・校旗)
- ③ コンキ [konki] (婚期・今期・根氣)
- ④ コッキ[kokki] (國旗・克己)

음성학적으로 ①은 3음절, ②,③,④는 2음절인데, 시간의 길이는 모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특수음을 지닌 「コー」「コン」「コッ」의 긴 음절은 음성학적으로는 하나의 단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음의 길이에서는 두 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즉, 두 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박은 본래 음의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로, 대개 仮名 한 자, 요음은 두 자에 해당하고, 한 단음절의 길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박은 원칙적으로 같은 길이로 받음된다. 이를 박의 등시성(等時性)이라고 한다. 한 박의 구체적인 길이는 5분의 1초 정도이고, 빠르게 이야기 할 때는 12분의 1초 정도라고 한다. 「オカザキ」는 4음절로 4박, 「オーサキ」는 3음절로 4박, 「コセキ」 3음절로 3박, 「コーキ」, 「コンキ」, 「コッキ」는 2음절로 3박이다. 앞에 나온 「日本, 學校, 先生, 公園」은 모두 2음절로 4박인 단어이다. 천천히 정중하게 하는 발음은 박마다 잘라서 발음한 것이다.

이렇게 특수음소는 음성학적으로는 음절로서의 독립성이 약하고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하기 어렵지만 음의 길이는 직음 음절과 마찬가지로 한 박자분의 길이를 가지며 단독으로 박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직음(또는 요음)만으로 된 짧은 음절은 1음절이 1박인데 비해서, 특수음을 지니는 긴 음절은 2박으로 한 개의 음성학적 음절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일본어의 음성학적 음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일본어의 음성학적 음절의 종류〉

- 1 단음절 - 길이가 1박인 음절
- 2 장음절 - 길이가 2박 이상인 음절
  - (1) 2박 장음절

- ① 장모음 음절
- ② 발음이 붙은 음절
- ③ 축음이 붙은 음절
- (2) 3박 장음절
  - ④ 발음이 붙은 장모음 음절
  - ⑤ 축음이 붙은 장모음 음절

#### IV. 일본어의 음운론적 음절구조

##### 1.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운론적 음절구조

앞서 일본어의 경우 특수음소의 존재로 인하여 음성학적 음절과 음운론적 음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일본어에서는 음운론적 음절의 경우 박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인 사이에서도 음절 경계의 불일치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제2장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보여준 특수음소를 포함하는 일본 단어에 대한 음절 의식에는 모어인 한국어의 음절구조가 깊이 개입하고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본장에서는 한국어의 음절구조와 일본어의 (음운론적) 음절구조의 비교를 통하여 위의 결과의 원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음절은 단음 하나, 혹은 몇 개가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결합이나 순서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있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된다.

한국어의 음절구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자음은 C로, 모음은 V로, 반모음은 S로 나타낸다. 이하 같다)



〈한국어의 음절구조〉

- ① V형(1모음으로 구성된 것) : 아, 오, 이
- ② CV형(1자음+1모음으로 구성된 것) : 가, 노, 치
- ③ SV형(1반모음+1모음으로 구성된 것) : 여, 요, 유
- ④ CSV형(1자음+1반모음+1모음으로 구성된 것) : 겨, 죠, 추
- ⑤ VC형(1자음+1모음으로 구성된 것) : 악, 옷, 입
- ⑥ CVC형(1자음+1모음+1자음으로 구성된 것) : 각, 농, 칠
- ⑦ SVC형(1반모음+1모음+1자음으로 구성된 것) : 열, 육, 운
- ⑧ CSVC형(1자음+1반모음+1모음+1자음으로 구성된 것) : 겹, 군

일본어의 음운론적 음절, 즉 박을 구조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와 달리 일본어에서는 반모음을 구분하여 나타낸다.

〈일본어의 음운론적 음절, 즉 박의 구조〉

- ㉠ V형(1모음으로 구성된 것)  
: あ, い, う, え, お
- ㉡ CV형(1자음+1모음으로 구성된 것)  
: か, さ, た, な, は, ま, ら, が, ざ, だ, ば, ぼ 각 행의 음
- ㉢ SV형(1반모음+1모음으로 구성된 것)  
: や, ゆ, よ, わ, を
- ㉣ CSV형(1자음+1반모음+1모음으로 구성된 것)  
: きゃ, しゃ, ちゃ, にゃ, ひゃ, みゃ, りゃ, ぎゃ, じゃ, びゃ, ぴゃ
- ㉤ 특수음소로 된 것  
: ン(撥音, N), ッ(促音, Q), ー(長音, R)

이 중 ㉑, ㉒, ㉓와 같이 仮名 한 자로 나타낼 수 있는 음절을 「직음(直音)」이라고 하고, ㉔와 같이 다른 행의 ㄷ단의 仮名에 「ヤ・ユ・ヨ」를 보통 글자 크기의 이분의 일 크기로 붙여 써서 仮名 두 자로 나타내는 음절을 「요음(拗音)」이라고 한다. 또 일본어 음절에는 탁점이나 반탁점이 붙어 있지 않는 仮名로 나타내는 「청음(淸音)」과, 탁점이나 반탁점을 붙인 仮名로 나타내는 「탁음(濁音)」의 대립이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절구조를 비교해보면 한국어에는 ①, ②와 같이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開音節, open syllable)과 ③, ④와 같이 자음으로 끝나는 폐음절(閉音節, closed syllable)이 모두 존재하는데 반해, 일본어는 개음절만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을 특수음소를 포함하는 일본어 음절을 한국어의 폐음절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 2. 일본어 박구조의 특징

일본어의 음운론적 음절, 즉 박구조의 특징은 먼저 그 수가 적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현대일본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외래어 등에 사용되는 특수한 음절, 예를 들면 ティ[ti], ディ[di], トウ[tu], ドウ[du], ファ[fa], フィ[fi], フォ[fo], クワ[kwa], シェ[je], ジェ[dze] 등을 별개로 하면 일단 111개의 음절이 인정된다. 이 음절수는 세계 언어를 놓고 볼 때 대단히 적은 편이다. 중국어(북경어)도 음절수가 적은 편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래도 400개 이상이며, 영어는 30000개를 넘는다.

두 번째로 박의 구성이 극히 단순하다는 것이다. 박 수가 적은 것은 우선 그것을 구성하는 자음이나 모음의 수가 적다는 것에 기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어의 자음음소는 /p, b, t, d, k, g, c, m, n, r, s, z, h, /의 13이고, 모음음소는 /i, e, a, o, u/의 5개이며, 반모음

음소는 /y, w/의 2개로 다른 언어에 비해 음소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또 박의 구조가 극히 단순하여 단음의 결합양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수가 적은 것이다. 특히 고대 일본어는 직음 음절만이 있었고, 요음이나 특수음소인 축음, 발음, 장음도 한자음의 영향으로 9, 10세기 이후에 생겨난 것이다.

셋째로 개음절구조라는 특징이 있다. 일본어는 오래전부터 개음절 언어이며 특히 한자음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고대 일본어는 직음의 개음절만으로 단순하고 정돈된 구성을 하고 있었다. 요음이나 발음, 축음 등이 생겨난 이후에도 이 「개음절성」은 굳게 지켜졌다.

폐음절 외국어를 외래어로서 받아들이는 경우 일본어의 개음절성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영어의 cup(CVC), text(CVCCC)를 일본어로 나타내면, カップ[kappu](CV,Q,CV), テキスト[tekisūto](CV,CV,CV,CV)가 되어 CV인 개음절의 연속체를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넷째로 하나의 박 안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연속해서 오는 일이 없다는 점이다. 영어의 tree, street, schedule 등은 음절 처음에 [tr-], [str-], [sk-] 와 같은 자음의 연속이 오지만 이러한 이중자음은 일본어에는 보이지 않는다. 단 축음은 [ippoN](一本), [katta](勝った)에서 보는 것처럼 [-pp-], [-tt-]와 같이 동일한 자음연속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중자음과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자음연속 중 앞에 오는 자음은 축음을 나타내고, 뒤의 자음은 후속음절의 첫자음을 나타내고 있어서 각각이 별개의 음절에 속하고 있다.

다섯째로 하나의 박 안에 두 개의 모음이 연속해서 서는 일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영어나 스페인어 등의 외국어에서 보이는 [ai], [oi], [ui] 등의 이중모음을 지니는 음절이 일본어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즉, 일본어에서는 이들 모음연속을 구성하는 제 1모음과 제 2모음 사이에 음향상의 경계가 인정되며, 제 1모음은 앞음절에, 제 2모음은 뒷음절에 속하여 각각 별도의 음절을 구성하고 있다.

## V. 맺는말

이상 한국인과 일본인의 음절의식의 차이를 단서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절구조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음절의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같은 한국인의 경우도 일본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음절의식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절구조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며, 또한 축음, 발음, 장음이라는 특수음소의 존재가 관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일본어는 본래 한 음절이 모음으로만 종결되는 개음절구조를 가진 언어였다. 그러던 것이 한자음의 영향으로 특수음소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어의 개음절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지만 현대 일본어에서는 특수음소가 앞의 음절과 결합하여 음성상으로 하나의 단위로 인정되기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어에서는 음성학적 음절 외에 음운론적 음절을 설정하고 이를 박, 혹은 모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음절을 이렇듯 이중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세계 언어와 비교해볼 때 대단히 특이한 것이다. 이러한 특수음소의 존재에 기인한 음절의 문제야말로 일본어의 특수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특수음소와 음절구조의 문제를 현대 일본어에 국한하여 살펴보는데 그쳤다. 바람직하게는 특수음소의 발생과 발달과정을 함께 고찰하여야 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고영근(2001), 「한일어 음운체계 비교분석」, 『한국의 언어연구』, 역락; 서울.  
 이기문·김진우·이상억(1994), 『국어음운론』, 학연사; 서울(초판1984).  
 황찬호·이계순·장석진·이길록(1993), 『韓日語 對照 分析』; 명지출판사, 서울(1988).

\*(일본 문헌은 우리말 한자음 순으로 개재함.)

橋本万太郎 外(1977), 『音韻(岩波講座 日本語 5)』, 岩波書店; 東京.  
 金田一春彦(1967), 『日本語音韻の研究』, 東京堂出版; 東京.  
 金田一春彦 外編(1988), 『日本語百科大事典』, 大修館書店; 東京.  
 服部四郎(1960), 『言語學の方法』, 岩波書店; 東京.  
 服部四郎(1979), 『音韻論と正書法』, 大修館書店; 東京(初版1951. 研究社)  
 服部四郎(1984), 『音聲學』, 岩波書店; 東京(초판1951).  
 石綿敏雄·高田誠(2001), 『對照言語學』, おうふう; 東京(初版1990).  
 城田俊(1993), 『日本語の音-音聲學と音韻論-』, ひつじ書房; 東京.  
 小松英雄(1981), 『日本語の音韻(日本語の世界7)』, 中央公論社; 東京.  
 小川芳男·林大編(1991), 『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東京(初版1982).  
 小泉保(1978), 『日本語の正書法』, 大修館書店; 東京.  
 中條修(1990), 『日本語の音韻とアクセント』, 勁草書房; 東京(初版1989).

## 【日文要旨】

## 韓國人と日本人の音節意識に関する對照研究

오 미 영

本稿は、對照言語學的觀點で韓國語と日本語の音節構造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韓國人と日本人の音節意識のギャップを考察の手がかりとした。日本人大學生と日本語を學習している韓國人大學生を對象に日本語の特殊音素を持つ單語の音節境界に関する調査を行った。この調査をとおして、韓國人と日本人の音節意識のギャップを証明することができた。このような音節意識のギャップは、韓國語と日本語の音節構造の相違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を明確にした。特に日本語音韻体系の中に、促音、撥音、長音という特殊音素が存在することによって發生する日本語の音節構造の特殊性についても考察した。

日本語は本來、一つの音節が母音で終わる開音節構造の言語であった。それが漢字音など外來音の影響で特殊音素が登場するようになった。これによって日本語の開音節性が完全に失われたわけではないが、現代日本語では特殊音素が先行音節と結び付いて音聲上一つの單位として實現されたりする結果を招いた。このような現象から、日本語では音聲學的音節のほか、音韻論的音節を設定している。この音韻論的音節を、拍、あるいはモーラという。このように音節を二重的に設定するのは世界の言語と比較して大変珍しいことである。この特殊音素の存在による音節の問題こそ、日本語の特殊性を示すものとも言えよう。

今まで、韓國語と日本語の音節構造に関する對照研究は、兩言語の音韻体系を對照する内容の一部分として、大変軽く扱われてきたように思う。本稿は、理論的な對照に止まるのではなく、實際の調査をとおして、實際に兩言語の話者の音節意識に相違が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ことに第一の意義がある。また、音節構造の相違を究明する上で、日本語の特殊音素の存在に注目したことにも、今までの韓國語と日本語の對照研究と區別される点であるとも言えよう。

**key words:** 음절(syllable), 음절의식(syllable perception),  
음절구조(syllable structure), 대조언어학(contrastive linguistics),  
한일어대조연구(contras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